

제 74 회 SGRA 포럼
제 9 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동아시아의 ‘국사’와 동남아시아」

일 시: 2024 년 8 월 10 일(토) ~ 12 일(월) (도착일 8 월 9 일 / 해산일 8 월 12 일, 출발일 8 월 13 일)
장 소: 왕립졸라롱껀대학교 및 온라인(Zoom 웨비나) 및 온라인(Zoom 웨비나)
주 최: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가능성 실행위원회
공동주최: 아스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글로벌연구회(SGRA)
조 성 금 : 도교구락부

■ 개최 경위

본 ‘국사들의 대화’ 기획은, 자국 역사를 전문으로 하는 각국 연구자들 간의 대화 및 교류를 목적으로 2016 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총 8 회 개최됐다. 국경을 넘어 수많은 참가자가 모여, 각국 국사(國史)의 현상학과 과제, 개별적인 실증연구를 둘러싼 논의와 교류를 심화해 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속에서도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세 차례 온라인 개최를 시도해, 토론을 계속할 수 있었다. 지난번 제 8 회(2023 년)에는 3 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온라인 병행 하이브리드 개최)할 수 있게 돼, 대면으로 이뤄지는 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제 9 회를 맞이하는 금번에도 대면으로 개최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가 가능하다. 한중일 1 편씩, 총 3 편의 논문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금번에도 원활한 대화 진행을 위해 한국어⇔일본어, 한국어⇔중국어, 일본어⇔중국어 동시통역을 마련한다. 포럼 종료 후에는 강연록(SGRA 레포트)을 발간하고, 참가자 에세이 등을 메일 매거진 등으로 사회에 널리 발신할 예정이다.

■ 개최 취지

‘국사들의 대화’ 기획은 한중일 ‘국사’ 연구자의 교류를 심화시킴으로써 지(知)의 플랫폼을 구축해, 삼국 간 역사인식문제 극복에 대한 지혜 제공을 목적으로 대화를 거듭해 왔다. 제 1 회에서 한중일 각국의 국사연구와 역사교육 상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해, 그 후 13 세기부터 시대를 따라가며 주제를 설정하고 대화를 심화시켜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한 시기에는 온라인 대화를 통해, 역사학을 둘러싼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뤘다.

지난해 대면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국사들의 대화’ 기획 당시부터 구상된 20 세기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국민의 역사인식을 주제로 내걸었다. 다양한 측면에서 풍부한 대화가 이뤄졌고 ‘국사들의 대화’ 기획의 목표 중 하나가 달성되었다. 앞으로는 8 년간의 대화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한중일 국사 연구자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더욱 발전시켜 나갈지, 또 이를 위해 어떠한 방침으로 대화를 계속해 나갈지가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같은 새로운 단계를 맞이해, 금번 제 9 회에는 개최지와 관련지어 ‘동남아시아’와 각국 국사의 관계를 주제로 삼았다. 한국·중국·일본의 국사연구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왜, 어떻게 이 지역에 주목해 왔을까? 과거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에서의 교류와 ‘진출’이 있었다. 이는 정부간 관계이기도 하고, 그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동이기도 했다. 이러한 모든 관계나 그에 대한 관심의 본질은, 각국에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직간접 관계의 해명에 더해, 비교적 조건이 가까운 사례로서 자국 내 변화 과정과의 비교도 이뤄져왔다. 원래 ‘동남아시아’라는 틀 자체도, 국민국가나 ‘동아시아’라는 틀과 동일하게 세계의 격동 속에서 태어난 것으로 역사학의 고찰 대상이 되어 왔다.

본심포지엄에서는 각국 학계를 선도하는 연구자 중심으로 과거 연구 동향과 최근의 성과가 소개된다. 이러한 연구는 어떠한 사회적·역사적 배경 아래에서 진행되어 온 것인가? 이러한 방법과 시각에 근거해 자국사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고, 또 향후 어떠한 전망을 그릴 수 있을 것인가? 논의와 대화를 통해 삼국 국사의 대화를 조금 더 다원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고, 보다 열린 형태로서 발전의 방향성까지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 프로그램

※기조강연 40~50 분, 발표 20 분

2024년 8월 9일 (금)				
도착 (19:00 경~환영회)				
2024년 8월 10일 (토)				
원탁회의: 국사대화 제 1 세션 (9:00~10:30) 사회: 류지에 (와세다대)				
개회사	미타니 히로시	MITANI Hiroshi	도쿄대 명예교수	
기조강연	양쿠이쑹	YANG Kuisong	베이징 대, 학화동 사범 대학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의 ‘내셔널리즘’ 충돌의 원인을 둘러싼 고찰-마오쩌둥 시대의 영토 분쟁에 관한 전략 변화를 단서로
질의응답				
휴식 (10:30~11:00)				
원탁회의: 국사대화 제 2 세션 (11:00~12:30) 사회: 남 기정(서울대)				
태국	파타짚 탕신만쿵	Pattajit TANGSINMUNKONG	도쿄대	‘대나무 외교론’에서의 대국관계와 소국의식
일본	요시다 마사미	YOSHIDA Masumi	미쓰이 문고	일본 근대사와 동남아시아-1930 년대의 평가를 둘러싸고-
한국	윤 대영	YOUN Dae-yeong	서울대	한국의 동남아시아사 연구
중국	가오 옌제	GAO Yanjie	샤먼대	화교 사무와 외교: 1959년 인도네시아 화인 탄압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아시아미래회의 개최식, 기조강연과 오픈 포럼 (16:45~18:15)				
아시아미래회의 웰컴 파티 (18:30~)				

2024 년 8 월 11 일 (일)				
원탁회의: 국사대화 제 3 세션 (9:00~10:30) 사회: 평하오(오사카 공립 대)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토론자:				
【한국】		【일본】		【중국】
정 재현(목포대)		사토 유키(릿쿄대)		정 제시(원저우대)
한 성민(고려대)		히라야마 노보루(가나가와대)		정 정(효고현립대)
휴식 (10:30~11:00)				
원탁회의: 국사대화 제 4 세션 (11:00~12:30) 사회: 정 순일(고려대)				
자유토론				
토론 정리	류 지에	Lie Jie	와세다대	
점심 휴식 (12:30~14:00)				
원탁회의: 국사대화 제 5 세션 (14:00~15:30) 사회: 시오데 히로유키(교토대)				
향후의 국사대화				
폐회인사	송 지용	SONG Zhiyong	난카이대	
아시아미래회의 분과회, 그룹 세션 (신진연구자 논문발표) (16:00~17:30)				
아시아미래회의 폐회 파티 (18:00~)				
2024 년 8 월 12 일 (월)				
스터디 투어 (임의)				
2024 년 8 월 13 일 (화)				
출발				

■ 「국사들의 대화」 프로젝트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은 2015 년 7 월, 제 49 회 SGRA(세키구치글로벌연구회) 포럼을 개최해 ‘동아시아의 공공재’ 및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우선 동아시아에 ‘지(知)의 공유공간’ 혹은 ‘지(知)의 플랫폼’을 만들고, 이로부터 화해로 이어지는 지혜를 창출해 동아시아에 제공하자는 의의를 확인했다.

이 플랫폼에 ‘국사들의 대화’ 코너를 설치한 것은 2016 년 9 월의 아시아 미래회의를 기회로 개최된 제 1 회 ‘국사들의 대화’였다. 지금까지 3 개국 연구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각국의 역사인식을 좌우하는 ‘국사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대화는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인식 하에, 우선 동아시아의 역사대화를 가능케 할 조건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미타니 히로시 교수(도쿄대 명예교수), 거자오광 교수(푸단대 교수), 조광 교수(고려대 명예교수)의 강연을 통해, 3 국의 다양한 ‘국사’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일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검토했다.

제 2 회 대화에서는 자국의 역사와 국제관계를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몽골침략과 13 세기 몽골제국의 글로벌화’라는 테마를 설정했다. 2017 년 8 월, 한국·일본·중국·몽골 등에서 11 명의 국사 연구자가 기타큐슈에 모여, 각국 국사의 시점에서 연구를 발표한 후, 동아시아 역사라는 시점에서 조공책봉의 문제, 몽골사와 중국사의 문제, 사료를 다루는 방법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의 모든 발표를 통해, 동아시아 전체의 움직임에 주목할 때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개개의 나라와 사회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제 3 회 대화는 ‘17 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주제로 설정했다. 2018 년 8 월, 9 명의 한중일 국사 연구자가 서울에 모여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만주의 홍타이지의 조선침공 및 그 배경에 있는 은 무역을 주축으로 한 긴밀한 경제관계, 전란 후 안정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세 차례의 국사 대화를 되돌아보며 다음 단계로 계승하기 위해, 와세다대가 주관하는 ‘화해를 향한 역사가 공동연구 네트워크의 검증’이라는 패널 토론을 개최했다.

제 4 회 대화에서는 “‘동아시아’의 탄생: 19 세기 국제질서의 전환’이라는 테마로 2020 년 1 월 필리핀 마닐라시 근교에서 한중일 국사 연구자들이 모여 각국의 ‘서양에 대한 인식’, ‘전통에 대한 도전과 창조’,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에 대해 발표하고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제 5 회 대화는 ‘19 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전염병 유행과 사회적 대응’을 테마로 하여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2021 년 1 월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19 세기에 감염병 문제를 각국이 어떻게 인식했고, 또 어떻게 대응책을 준비했는지를 검토하고 각국의 상호협력과 그 한계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논문 발표와 함께 지난 4 회의 회의 참여자가 패널리스트로 다수 참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염병 유행으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개최한 했지만, 결과적으로 Zoom 웨비나라는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전개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대화가 되었다.

제 6 회 대화는 아시아 근현대의 ‘사람의 이동과 경계·권력·민족’을 주제로 제 5 회에 이어 온라인(3 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다. 시오데 히로유키 교수(교토대)는 문제제기에서 근현대 사람의 이동을 좌우해온 국경에 초점을 맞춰, 사람의 이동이 국가주권체제 및 국제정치구조(제국주의와 냉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후의 세션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자유토론을 주체로 하여 하루를 소비한 다소 실험적인 구성이었지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제 7 회 대화는, 2022 년 8 월 “‘역사대중화’와 동아시아 역사학’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한성민 연구교수(고려대)가 평소 한국 역사학자 가운데 논의되고 있는 ‘역사대중화’ 문제를 제기해,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는 역사학의 현상황을 분석하고 해결방법의 하나로 ‘공공역사’를 제안했다. 그 뒤, 각국의 다른 상황을 바탕으로 ‘역사의 대중화’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 8 회 대화는, 2023 년 8 월 ‘20 세기의 전쟁·식민지 지배와 화해는 어떻게 이야기되어 왔는가: 교육·미디어·연구’를 주제로 대면과 온라인의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3 년 만에 대면 개최가 이뤄진 제 8 회에는 종래와 같이 한중일 3 편씩, 총 9 편의 논문발표와 토론이라는 구성으로 되돌아가,

‘교육’, ‘미디어’, ‘연구’ 각 부주제별로 한중일에서 1 명씩 발표를 진행했다. 2 일차에는 지정토론과 전체토론이 이뤄졌다. 온라인 개최 특성상 토론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으나, 제 8 회에는 제 4 회까지와 동일하게 2 일간 개최돼, 토론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기에, 유의미한 논의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각국이 직면한 현상함과 그 배경으로부터 초래되는 과제가 발표를 통해 명확히 제시됐고,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표출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포럼, 세션의 대화뿐만 아니라, 3 개 국어에 대응한 레포트 배부와 메일 매거진의 릴레이 에세이 등을 통해 원탁회의 참가자의 네트워크화의 도모를 목적으로 시작됐다. 8 년에 걸친 경험의 축적으로, 400 명 이상의 한중일 국사 연구자 네트워크로 성장하고 있다.

■국사들의 대화 레포트 지난호

제 1 회 국사대화 레포트 「한국·일본·중국의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http://www.aisf.or.jp/sgra/korean/2017/08/07/sgra-report-no-79/>

제 2 회 국사대화 레포트 「몽골침략과 13 세기 몽골제국의 글로벌화」
<http://www.aisf.or.jp/sgra/korean/2018/05/10/sgra-report-no-82/>

제 3 회 국사대화 레포트 「17 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전란에서 안정으로」
<http://www.aisf.or.jp/sgra/korean/2019/12/19/sgra-report-no-86/>

제 4 회 국사대화 레포트 「‘동아시아’의 탄생: 19 세기 국제질서의 전환」
http://www.aisf.or.jp/sgra/korean/2021/01/29/sgra_report_no_90/

제 5 회 국사대화 레포트 「19 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전염병 유행과 사회적 대응」
<https://www.aisf.or.jp/sgra/korean/2021/12/13/sgra-report-no-94/>

제 6 회 국사대화 레포트 「사람의 이동과 경계·권력·민족」
<https://www.aisf.or.jp/sgra/korean/2022/09/09/sgra-report-no-96/>

제 7 회 국사대화 레포트 「‘역사 대중화’와 동아시아의 역사학」
<https://www.aisf.or.jp/sgra/korean/2023/06/15/sgra-report-no-101/>

제 8 회 국사대화 레포트
「20 세기의 전쟁·식민지 지배와 화해는 어떻게 이야기되어 왔는가: 교육·미디어·연구」
<https://www.aisf.or.jp/sgra/korean/2024/07/24/sgra-report-no-106/>

■메일매거진 지난호

<https://www.aisf.or.jp/kokushi/index.html>